

끊임없는 스쿨존 사고... 등하굣길 '조마조마'

좁은 인도·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험'...광주·전남 5년간 사고 161건 불법주정차에 학생들 무단횡단 '아찔'...운전자 안전 의식도 강화해야

20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은 무법천지였다. 인도가 좁아 학생들이 도로로 밀려나고, 학교 맞은편 도로에는 안전펜스조차 없어 무단횡단이 이어지고 있었다. 등교시간 연두색 안전조끼를 입고 있는 '교통안전지킴이'가 학교 앞에서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차를 타고 등교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통제를 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광주지역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등굣길에서도 순간의 방심으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었다.

20일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사상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간 광주에서는 84건, 전남에서는 77건 등 총 161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90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광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647명(사망 2, 부상 645), 전남은 694명(사망 7, 부상 687)으로 총 1341명에 달했다. 어린이 사상자의 14.2%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에도 등하굣길 위험은 여전했다. 화정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는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부모 차량을 이용해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 교통혼잡은 더 심했다.

초등학교 바로 앞 인도에는 차단봉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건너편에는 인도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차에서 내린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무단횡단을 했다. 스쿨존의 인도 안전펜스·블라드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차도도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더욱 위험했다.

같은 시각 서구 광덕고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로 인산인해였다.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30m가량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해 교문으로 몰려 들어갔다. 북구 우산동의 한 중학교 앞 인도는 학생 2명이 건

גיע에도 비좁아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이모(16)양은 "학교 앞 인도는 두 명이 지나가면 딱 찰만큼 좁은데 반대편에는 좁은 인도조차 없다"며 "길이 위험하다고 느껴서 학교 밖으로 이동할 때마다 여러번 살피며 조심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학교 앞 불법주정차는 지뢰밭을 방불케 했다.

등하굣길 학교 인근을 지나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차량들도 눈에 띄었다.

3년째 등굣길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기세근

(69)씨는 "주변 골목에 불법주정하는 차량이 많아 아이들이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 등교한다. 황색선도 아무 의미 없다"며 "인도가 한쪽만 있고 반대쪽에는 없을 뿐더러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없다"고 설명했다.

새학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북구 일곡동의 초등학교에 딸을 데려다 주던 양모(여·39)씨는 "학교 정문 앞에 차가 많아 작은 아이들이 잘 안보일 때가 있다"며 "녹색어머니회가 안전지도를 맡고 있어 학교 앞은 안전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길이 좁고 위험해 등·하교를 직접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 송정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인근에는 신호등이 없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곳에서 7년째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박모(여·78)씨는 "학교 주변에 신호등이 없어 학생들이

모두 등교할 때까지 가슴을 졸인다"며 "신호등과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스쿨존 사고는 무단횡단 사고가 대부분이라, 무단횡단을 막는 펜스 등 장애물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며 "학부모와 학원 차량의 불법주정차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 추가 설치, 단속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갖고 스쿨존에서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지자체경찰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간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20일 광주시 서구 화정초등학교 등굣길에 학생들이 교통안전지킴이의 지시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적장애인 속여 수천만원 갈취 광주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지적장애인을 속여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께부터 6월까지 108차례 걸쳐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5000만원 이상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친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이자 등을 다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뒤 보험금을 타 2배로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게임 아이템 구매 대금을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병원비와 집 전등교체 비용, 기름값, 차량 수리비, 월세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속인 방법과 그 사용내역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절도로 27년간 수감됐는데

출소 후 또 절도하다 철창행

시골 할머니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접근해 금품을 훔친 50대 여성 절도범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화순경찰청 노인들을 상대로 수 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A(여·52)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에서 B(여·79)씨에게 접근해 현금 40만원과 휴대전화 등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라며 B씨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 혼란스럽게 한 후 가방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범행으로 27년 동안 수감됐다가 1년 전 출소에 모택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광주·전남 등 전국의 티미널, 병원 대합실 등지를 돌며 12회에 걸쳐 24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다민 기자 kdi@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하교시간 집중 발생

광주·전남 오후 2~6시 43%나 교차로·횡단보도 앞 주의 필요

광주·전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하교 시간에 잦고 도로를 건너는 중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사상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전남 어린이 교통사고 161건 가운데 43.2%(83건)가 하교 및 학원 등·하원, 놀이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10시 15건, 오전 10시~낮 12시 6건, 낮 12시~오후 2시 19건, 오후 2~4시 43건, 오후 4~6시 40건, 오후 6~8시 29건, 오후 8시~밤 10시 7건, 밤 10~12시 2건 등이었다.

사고 당시 상황으로는 '도로 횡단 중'인 경우가 55%를 차지했으며, 광주·전남에서 5년 동안 89건 발생했다.

차도 통행 중 발생한 사고는 7건, 보도 통행 중 사고는 5건,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중 사고는 2건 등이었다.

사상자 또한 도로 횡단 중인 경우에 1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다쳐 전체 사상자의 51.3%를 차지했다.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S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오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안전관리가 미흡한 오후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사고에 취약하다"며 "운전자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항상 보행 중인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변을 더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력범죄 사각지대 해소 치안기반 구축한다

전남자치경찰위, 13개 시·군 선정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치안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 올해 사업 대상지로 13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의 범죄취약지역에는 지능형 CCTV·스마트폴 등 범죄예방시설을 집중 설치한다.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이 폭행, 쓰러짐 등 비정상적인 동작을 감지해 위험 상황을 판단해 'CCTV 관제센터'를 통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장비다.

스마트폴은 범죄예방을 위해 CCTV, 보안등, 비

상벨, 와이파이, 스피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첨단 치안 기반 구축 사업은 2026년까지 3년간 66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주요 대상지는 광양시 공원·광장 주변, 구례군 지리산 둘레길, 순천시 순천만 오전그린광장, 여수시 공원·광장·산책로 주변, 영광군 범죄취약지역, 영암군 외국인보호구역, 완도군 학교 주변, 장성군 범죄취약지역, 장흥군 주요 마을 진입로, 진도군 다중운집 공공주차장, 함평군 엑스포공원, 해남군 도서지역 및 주요 거점, 화순군 공원 및 산책로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